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요청 쇄도…전남, 예산 부족에 ‘난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수요 넘쳐 하루 20명 넘게 항의성 민원 응대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도 인기

전남도 인구정책과에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의 민원 전화가 매일 쇄도한다.

경기침체·고금리 시기에 매일 25만원씩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신청자가 많아도 지원 규모가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매일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요건을 완화해 달라’,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 늘리면 될 것 아니냐’는 내용을 주장하는 민원인 한 명과 4시간 넘게 끝없이 통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수요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어 고질적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완화하고 규모도 늘렸지만 짧은 수요가 많아 고민이 필요하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신혼부부 등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자녀 등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연소득 8500만원 이하(부부 합산 소득)나 1억원 이하(다자녀가정)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양육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남도(40%)와 시·군(60%)이 분담해 1261명에 대한 사업비로 37억 7800만원을 지원해오다 올해부터 450명을 늘려 1711명을 지원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44억 41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워낙 희망 수요가 많아 하루 수십명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도 세금내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 ‘돈이 없어 주택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택 샀다고 이자 지원해주는 게 맞는 정책이냐’ 등의 주장을 펴는 민원인들과 최소 20분 이상, 하루 20명 이상 응대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409명(2021년·도비 9억2200만원)→420명(2022년·9억7900만원)→436명(2023년·12억 400만원) 등으로 지원 대상자와 사업비를 매년 늘려왔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사업자 등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인기다.

전남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온 방편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늘리고 39세까지인 청년 대상자도 45세로 완화해 지원 중이지만 수요가 많아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500명에 대한 지원비로 12억원(도비 4억 8000만원, 시·군비 7억 2000만원)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주택가격 상승,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미리 크리스마스” 3일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대형 산타클로스 인형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의회,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료이용 예산전액 삭감 논란

시행 1년 만에 무산 위기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함께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내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시행 1년 만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지난 2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내내 예산안 심의에서 5·18 기념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예산 2억 6800만원과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예산 51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행자위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4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다, 도시철도 역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주인권평화국이 아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공항공통국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회가 광주시와 함께 지난 4월 무료 운행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사업 시행 1년도 안돼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조례에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유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5·18 44주년 당시 처음 시행한 ‘무료 지하철’ 이용객은 6만542명이었으며,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 이용객이 집계되지 않았다. 특히 첫 시행 당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컸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 예결위 예산 심의는 오는 9일부터 열린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고향사랑 실천하고 김장 김치 받으세요”

전남도, 답례품 후기 작성 이벤트

전남도가 지난 1년간 보내준 기부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김장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를 작성하면 전남 김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김장 시즌을 맞아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추가 답례품 전남 김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전남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

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기부자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전남 김치 1kg이 추가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추가 답례품은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고들빼김치, 배추김치가 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전남 노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한 행사”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이어 강진서도 AI 항원 검출…전남 축산농가 ‘비상’

오리농장 방역·이동제한 등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강진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축산 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가금류 사육농장과 철새 월동지인 이른바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군 군평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 사육중인 육용 오리 2만 2000마리(18일령) 중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농장주 신고를 접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임을 확인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를 거쳐 확인된다.

전남도는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는데 한편,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H5 검출농장

내 사육오리를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실시했다. 강진에서는 현재 15개 농가가 28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4일 오후 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2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강원 동해 1, 충북 음성 1, 충남 서산 1, 인천 강화 1, 영암 1 등 5건이 발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어치는 기성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